"한여름밤 '문화 피서' 즐기세요"

광주 곳곳 음악회·마술쇼 등 '풍성'

"'찜통 더위'에 지친 심신, 아름다운 선율로 씻어보세요."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잊고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서 아름다운 선율에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표〉

다양한 예술공연

광주시 서구청은 23일 오후 7시 운천저수지를 시작으로 '한여름밤의 호수·공원 콘서트'를 시작한다. 서구청은 8월 2일 풍암생활체육공원, 14일 매월호수, 17일 상무시민공원, 28일 마재근린공원 등 호수와 공원을 번갈아 찾아가며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피서' 기회를 제공한다.

콘서트는 '빛고을국악봉사단'의 북춤, 남도민요 등 전통국악과 퓨전 음악, 오카리나 공연, 아이들을 위한 마술쇼 등으로 꾸며진다.

북구청도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부터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에서 '문화근린공원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북구청은 8월 중에 양산호수에서도 열린 음악회를 열어 여름밤의 추억 만들기에 가세한다.

동구청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충장로 4가와 금남로공원, 광주우체국 앞 등에서 마술쇼·뮤지컬·섹소폰 연주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를 계속한다.

광주 남부경찰과 DJ센터도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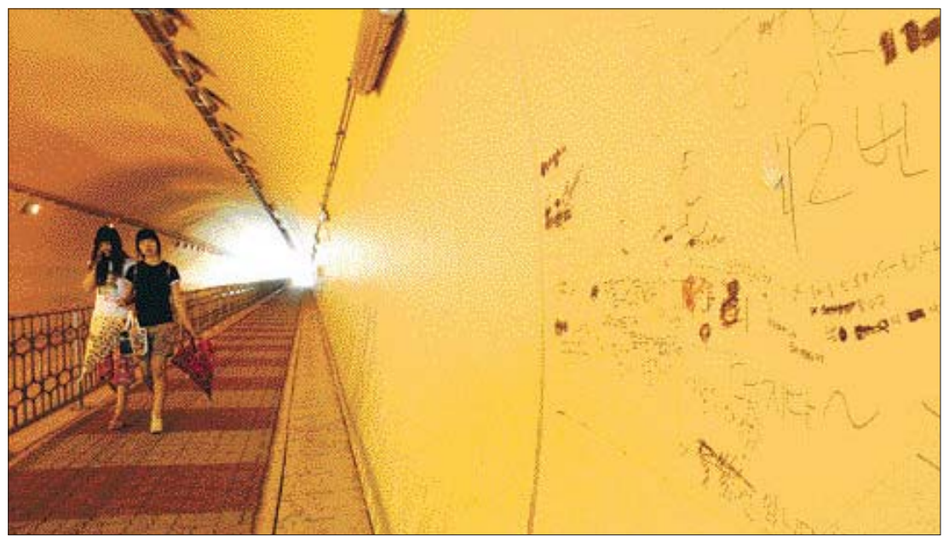
남부경찰은 오는 25일 경찰서 앞마당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112타격대 상경 현태훈외 7명의 댄스, 형사과 이영대 경장의 노래 등 각종 공연 등을 마련해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설 예정이다.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분수대 광장 야외무대에 대형스크린을 마련, 22일부터 8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30시부터 무료 영화상영을, 토요일 오후 8시부터는 라이브색소폰 연주를 펼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한 여름밤 문화예술 공연

주최	행 사	날짜·시간	장 소
동구청	• 2007 문화예술축제	매주 화·오후 6시	광주 우체국·민주소공원
		매주 목·오후 6시	충장로 4가(구 조흥銀)
		매주 토·오후 6시	금남로 공원
서구청	• 한여름 밤의 호수(공원)콘서트	7. 23·오후 7시	운천 저수지
		8. 2·오후 7시	풍암생활체육공원
		8. 14·오후 7시	매월공원
		8. 17·오후 7시	상무 시민공원
		8. 28·오후6시30분	마재근린공원
	• 임석인과 좋은 친구들 강변음악회	8. 26·오후 8시	제일오피스텔 앞
북구청	• 문화근린공원 열린 음악회	7월말	일곡근린공원
	• 한 여름밤 호수 음악회	8월 중	양산동 양산제
김대중 컨벤션 센 터	• 무료영화상영	매주 금·오후8시30분	DJ센터 분수대 광장
	• 라이브 색소폰 연주	매주 토·오후 8시	DJ센터 분수대 광장
남부 경찰서	• 한 여름밤의 음악회	7. 25·오후 7시	남부경찰서 앞마당



시민들이 개통 4달 만에 낙서로 더럽혀진 광주시 남구의 '방림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구 방림터널 '낙서 몸살'

욕설·그림 벽면 도배
지나가기 민망·눈살
무단횡단 사고위험도

광주시 남구의 '방림터널'이 개통 4달 만에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 함께 개설된 인근 연결도로 또한 무단횡단이 빈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23일 오후 찾아본 방림터널(145m)은 양쪽 벽면이 낙서와 흉물스런 그림으로 도배돼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터널 벽면에는 'XX아 사랑 아니 좋아해', 'You can do it','XX 재수없어 너랑 안 놀아' 와 같은 글과 욕설이 가득하고 남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그림들까지 그려져 있다.

주민 김종철(57)씨는 "하루에 몇 번씩 터널을 이용하는 데 벽면에 즐비한 낙서 때문에 애들 데리고 지나가기가 민망하다"며 "남구의 브랜드인 효(孝)사랑 갤러리를 그려 넣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터널과 연결된 1순환도로~동아여고 간 신설 도로(513m)에서는 무단횡단이 빈번해 교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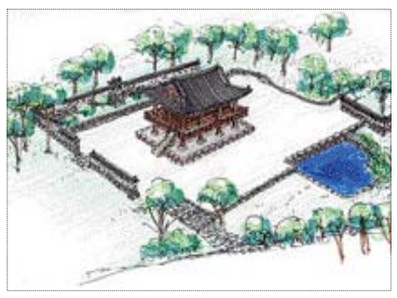
안행선(30·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이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등·하교시간에는 인근 학교 학생들이 뛰어들어 급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림터널'은 남구 방림동 금호아파트와 송림아파트를 연결하는 총연장 145m의 터널로 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 2003년 말 공사를 시작해 지난 3월16일 정식 개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자매도시 美 샌 안토니오에

전통 '남도 누정' 짓는다



광주시의 자매도시인 미국 샌 안토니오시에 전통 '남도 누정'〈조감도〉이 건립된다.

광주시는 23일 "내년 3월까지 미국 샌 안토니오시의 텍사스 문화원내에 300㎡ 규모로 남도의 풍류와 멋이 깃들인 정자·연못·전통담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샌 안토니오시를 방문하고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정원건립 기본계획(안)을 제안하는 등 관련 협의 절차를 마쳤다. 다음달에는 소쇄원 광풍각을 기본모델로 세부 디자인과 설계에 이어 내년 3월까지는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요 사업비는 '남광건설'이 지원하게 되며, 샌 안토니오시에서는 부지제공과 향후 시설물 관리를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립되는 '남도 누정'은 미국인들에게는 광주의 전통을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과 우호증진의 상징이 되고, 한인 동포들에게는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조국을 생각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시는 지난 1982년 2월 4일 샌 안토니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2004년 11월 박광태 시장이 샌 안토시오시를 방문 명예시장증을 받는 등 양 시간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청소년 민방위 교실
북구 27일까지 운영

광주시 북구는 청소년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청소년 민방위교실'을 연다.

23일부터 27일까지 펼쳐질 이번 '청소년 민방위교실'은 구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강의 내용은 ▲응급처지 필요성(이론) ▲응급처치 요령(실습) ▲길거리 캠페인(현장활동) 등이며,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인증서'가 교부된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효사랑 영수증 마일리지
남구·이마트 봉선점

광주시 남구와 신세계 이마트 봉선점이 '효사랑 영수증 마일리지'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은 시민들이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 총액의 0.5%를 각종 주민생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남구는 앞으로 관내 유통업체 30곳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효사랑 영수증 마일리지'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모집함에 발급받은 영수증을 넣으면 되고, 개인에게 적립되는 유통업체 포인트 점수와 무관하게 사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24일)	
신광식	223-0231
●법무사회 법률상담(24일)	
오영란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건축자재 디자인·브랜드 개발·자금 지원 등

하우징 혁신시스템 추진

광주시가 부가가치가 높은 하우징(건축) 자재산업의 신기술과 디자인, 브랜드 개발 ,자금지원 등 하우징 혁신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23일 "산업자원부가 공모한 지역연고진흥사업에 광주디자인센터의 '광주지역 하우징자재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한다. 오는 2010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41억 원이 투입되며 이 지역 하우징 업계의 생산제품 경쟁력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기업지원,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통합브랜드와 명품디자인 개발▲친환경 자연소재 응용제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유해성분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용 접착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통합브랜드 상설전시관 운영, 해외시장개척 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화 등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지역 자재 업계 활성화를 위해 중흥동 건축자재거리 등 200여 곳의 건자재 기업에 자금과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광주권역 자재산업 매출 규모가 지난해 1조 2천억 원에서 2010년 1조 6천억 원대로 급성장하고 1천6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원목과 원석 등 천연 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친환경 자재가 뜨고 있는 만큼 이번 혁신시스템 구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